

다산(茶山)의 ‘소사상제(昭事上帝)’와 기독교 윤리에 관한 고찰

엄국화(송실대학교 시간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경(敬), 대월(對越) 그리고 소사(昭事)
- III. 다산의 ‘소사(昭事)’
- IV. 경천(敬天)에서 사천(事天)으로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3>

• ABSTRACT •

A Study on Tasan(茶山)'s 'Sosasangje(昭事上帝)' and Christian Ethics

Lecture, Uhm, Kookhwa (Soongsil University)

In East Asian thought, there is a Chinese idiom called "Gyungchunaein(敬天愛人)" which is comparable to "Love of God and neighbor" which is the core doctrine of the Bible. This article analyzes the idea of Tasan(茶山) Jung Yak-yong(丁若鏞), who made Sosasangje(昭事上帝) which is similar to the meaning of 'love of God and neighbor'. Former researches on Tasan had been focusing on the idea of 'Sangje(上帝)' rather than 'Sosa(昭事)', However, scholars have recently emphasized on the idea of 'Sosa(昭事)'. Thus, this article focuses on 'Sosa' which is an act rather than 'Sangje' which is the object of 'Sosa'. Tasan says that Sosajihak(昭事之學) is Gunjajihak(君子之學). In other words, Sosajihak does not simply mean a religious dimension, but the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leader's way of Sachin and Sacheon. Based on this ethical foundation, this research makes a connection between Tasan and Christian ethics.

Key words: Tasan(茶山), Jung Yak-yong(丁若鏞), Sosasangje(昭事上帝), Gyungchunaein(敬天愛人), Daewoljaechun(對越在天),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착한 사마리아인' 에피소드는 어느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유대인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는 직접 답을 주지 않고 그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때 율법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며 대답한다. 예수는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교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가 제시한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다.

구약성서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된 데 따라,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두 개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사상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비견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이 유교 경전에서도 '경천'과 '애인'이 처음부터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고, 후대에 '경천'과 '애인'을 붙여 쓰며 '경천애인'이라는 관용표현이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소사상제(昭事上帝)'를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둥으로 삼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

1836)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적 해석의 틀을 벗어나 서학(西學)적 윤리관, 폭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했다. 그런데 기존의 다산에 관한 연구는 ‘소사(昭事)’보다는 ‘상제(上帝)’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이야 ‘소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사상제’에서 그 대상이 되는 ‘상제’보다는 행위가 되는 ‘소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학자 중에는 선현의 가르침을 후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쓴 말이라면 되도록 피하거나, 그 말이 보편화되었다면 더욱 그 말을 배제하려는 태도로 학문하는 사람도 있다. 다산은 후자의 경향을 가진 학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산이 이전의 보편화된 용어들을 무조건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학술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경전에 천착하여, 오래된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재창조하는 작업을 선호했다. 다산은 자신의 여러 글에서 수사(洙泗)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산이 종종 인용하는 ‘소사상제(昭事上帝)’ 역시 다산이 독창적으로 만든 말은 아니다. 따라서 ‘소사상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고대 중국 고전에서부터 등장하던 ‘경천(敬天)’에서부터 다산이 재발견한 ‘소사’와 ‘사천’이라는 말이 어떤 연원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II. 경(敬), 대월(對越) 그리고 소사(昭事)

유교 경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이 하늘과 인륜(人倫)에 관해서 동시에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앞서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한자성어를 들었지만, ‘경천’과 ‘애인’은 각각 다른 출처가 다른 말이다. ‘경천’은 『시경』에 등장하고, ‘애인’이라는 말은 『논어』¹⁾와 『맹자』²⁾의 인(仁)에 대한 해석에서 등장한다. 『여유당

전서(與猶堂全書)』에서도 경천애인이라는 성어는 등장하지 않고, 경천과 애인이 함께 언급되는 글도 없다.

‘경(敬)’이라는 서술어가 ‘천(天)’에 대응되는 말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시경』 「대아(大雅) 생민지십(生民之什)」이다.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인일하지 말며
하늘의 변함을 공경하여 감히 치구하지 말지어다
호천이 매우 밝으사 너의 나가고 왕래함에 미치시며
호천이 매우 밝으사 너의 유연함에 미치시느니라³⁾

『시경』에서 ‘경’은 “하늘의 노를 공경하여”와 “하늘의 변함을 공경하여”와 같이 사용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하늘’을 대상으로 하여 ‘공경하다’ 또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지만 점차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어 쓰였다. 대표적으로 『논어』의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게 해야 한다”⁴⁾에서 ‘경’의 대상으로 ‘일[事]’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논어』에서도 “귀신을 경외하되 멀리하라”라고 하며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의 태도로 ‘경’의 자세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⁵⁾ 그러나 이미 『논어』에서 ‘경’이라는 단어를 하늘에 관하여만 사용하거나 신적인 존재에만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일[事]’에까지 확장해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선진(先秦) 유학의 ‘경’에 대한 의미를 더 발전시켜서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들은 ‘경’에 대해서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를 일관할

1) 『論語』, 「顔淵」 5장, “樊遲問仁 子曰 愛人.”
2) 『孟子』, 「離婁下」 5장, “仁者 愛人 有禮者 敬人.”
3) 『詩經』 「大雅 生民之什」, “敬天之怒 無敢戲豫 敬天之渝 無敢馳驅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
4) 『論語』, 「學而」 5장,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5) 『論語』, 「雍也」 5장,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수 있는 ‘마음가짐’로 해석한다.⁶⁾ 그리고 송대 유학을 수용한 조선의 유학자들도 ‘경’을 종교적 의미에 제한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학문과 일에 있어서 견지해야 하는 마음자세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경’이라는 단어가 애초에는 하늘을 대상으로 또는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삼는 종교적인 단어였지만, 중국 선진 유학을 비롯하여 중국 송대 유학을 거쳐 조선 유학에 들어와서는 하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포함하여 모든 일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늘 또는 상제를 대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조선 유학에서 하늘 또는 상제와 관련하여 사용된 다른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명령과 비교하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대월상제(對越上帝)’로 많이 알려진 ‘대월(對越)’의 용례를 보면, ‘대월’은 조선 유학자들이 ‘상제’라는 신적 존재를 대상으로 즐겨 사용했던 서술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월’ 역시 『시경』에 나오는 시구에서 인용한 것인데, 「주송(周頌) 청묘(淸廟)」 편에 등장한다.

아, 심원한 청묘에 공경하고 화(和)한 훌륭한 상(相)이며
 제제한 많은 선비들이 문왕(文王)의 덕을 잡아
하늘에 계신 분을 대하고 사당에 계신 신주(神主)를 매우 분주히 받드나니
 드러나지 아니할까, 떠받들지 아니할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음이 없으시도다⁷⁾

6) 퇴계 이황은 선조에게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올리는 차자(筭子)〉에서 “경을 지키는 것은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동(動)과 정(靜)을 일관하며, 안과 밖을 합일하고 드러난 곳과 은미(隱微)한 곳을 한결같이 하는 도(道)입니다.”라고 설명한다(『退溪集』, 「進聖學十圖筭」).

7) 『詩經』, 「周頌 淸廟」, “於穆淸廟 肅雝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 對越在天 駿奔走在廟 不顯不承 無射於人斯.”

‘하늘에 계신 분을 대하고’라는 구절은 ‘대월재천(對越在天)’을 번역한 것인데, ‘하늘에 계신 분(在天)’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당에 계신 신주(在廟)’와 연결되어 신적 존재 중에서도 더 고귀한 존재로 구별된다. 이 ‘하늘에 계신 분(在天)’을 상제로 통용하여 ‘대월상제’로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용례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중 제9도 「경재잠도(敬齋箴圖)」의 첫 구절이다.

의관을 바로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처하면서 상제를 대하듯 하라.⁸⁾

경재잠(敬齋箴)은 중국 남송시대의 학자 주자(朱子)가 경재(敬齋)라는 서재에 붙여둔 잠언인데, ‘경’에 대한 첫 번째 교훈으로 ‘의관을 정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월상제’를 언급한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 중에서 ‘경’에 가장 주목한 것은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의 주자’라 할 수 있는 퇴계 이황도 자신의 학문 세계에 있어 ‘경’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조에게 『성학십도』를 올리며 아홉 번째 그림으로 「경재잠도」를 배치했다.

주자나 퇴계 이황이 ‘경’을 중시한 것은 그 이전에 불교와 노장사상이 ‘정(靜)’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일에 나아가기 전 또는 무엇을 이루기 전에 ‘정’의 상태에서 마음 수양하는 것을 중시했던 불교나 노장사상은 ‘주정(主靜)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 유학자는 물론 조선 유학자도 ‘정’을 극복하거나 또는 포괄할 수 있는 개념어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필요에 부합하는 개념을 고대 유교경전에서 등장하는 ‘경’에서 찾은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경’은

8) 『退溪集』, 「聖學十圖」,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하늘이나 상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점차 동정(動靜)을 포괄하여 유지해야 하는 마음 상태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제’에 대한 태도가 ‘경’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주희의 「경재잠」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주자는 서재에 ‘경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가장 먼저 상제를 대하는 태도로서 ‘경’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대월상제’를 언급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천’의 ‘경’은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종교적 의미에서 더 확장되어 사용되고, 이러한 흐름에서 유교경전의 ‘경천’은 중국 송대와 조선에 와서는 ‘대월상제’로 대체된다. 그런데 ‘대월상제’는 ‘대월재천’의 ‘재천’을 ‘상제’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재천(在天)’과 ‘상제(上帝)’는 통용하여 쓰는 용어들이다. 비슷한 용법으로 ‘소사상제’도 ‘소사재천’으로 바꾸어 말한 경우가 있다.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은 성호 이익(星湖 李瀼, 1681-1763)은 「대월재(對越齋) 서(序)」에 ‘대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대월이란 혈후어이다. 대한다고만 말하고 대하는 상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상제는 가장 존귀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⁹⁾

성호 이익의 벗이 그의 서재에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경재잠’의 ‘대월상제’에서 따와 ‘대월재’라 하였다. 「대월재서(對越齋序)」는 성호 이익이 ‘대월재’에 관해 서문을 쓴 것으로, ‘대월’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월’에 대해 ‘혈후어(歇後語)’라고 했는데, 혈후어는 말의 뒷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뜻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익은 대월이라는 말에는 이미 ‘상제’가 생략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생략된’ 상제에 대해

9) 『星湖全集』 52권, 「對越齋序」, “夫對越 歇後語也 言對而不言所對 爲上帝尊無貳也.”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일무이하면서도 임하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히 재계하여 제복을 갖추고 그윽한 방에 단정히 앉아 홀로 있는 곳에서도 엄숙하게 항상 우러러 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제뿐이다.¹⁰⁾

이익은 상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 신론(神論)의 '유일무이(唯一無二)'와 '무소부재(無所不在)'라는 말의 의미와 비슷한 '무이(無貳)'와 '무불림(無不臨)'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그 상제를 대하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주로 대월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소사재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군자가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을 밝게 섬기는 것이 나의 직분을 다하는 데에 가까울 것이다.¹¹⁾

『시경』의 '소사상제', '대월재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대월상제', '소사재천'으로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사상제'는 『시경』 「대아(大雅) 대명(大明)」 편에 나타나는 시구(詩句)이다.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위정(爲政)·근천계(謹天戒)」에서도 「대명」 편이 일부가 인용되어 있으나 주자의 주석을 소개할 뿐 특별한 해석이 달려있지 않다. '소사상제'가 등장하는 「대명」 편은 다음과 같다.

10) 『星湖全集』 52권, 「對越齋序」, “無貳而無不臨 故使天下之人 齊明盛服 端居于幽室獨處之地 儼然常有以仰對者 惟上帝也.”

11) 『星湖全集』 52권, 「對越齋序」, “君子夙夜匪懈 昭事在天 庶幾吾職之盡也.”

이 문왕이 조심하고 공경하고 공경하사
 상제를 밝게 섬기시어 많은 복을 오게 하시니
 그 덕이 부정하지 아니하사 사방의 나라를 받으시니라.¹²⁾

「대명(大明)」 편은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를 정벌한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천명(天命)을 받아 천자(天子)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예찬한 시인데, 내용을 보면 ‘상제를 밝게 섬겨[昭事上帝] 많은 복을 오게 했다’고 노래한다. ‘상제’는 원래 은나라가 섬기던 최고의 신적 존재이므로, 상제를 ‘밝게 섬김[昭事]’으로 문왕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천명을 받아 사방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상제’라는 고대 중국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서술어로 ‘소사’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조선유학자이 경(敬), 즉 공경하는 태도에 대하여 논할 때 ‘대월상제’와 더불어 ‘소사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서학(西學, 천주교)이 수용되면서 상제에 대해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소사상제’는 ‘대월상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III. 다산의 ‘소사(昭事)’

다산은 남이 쓴 말이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중 ‘경(敬)’의 의미를 충실히 담은 아홉 번째 「경재잠도」 첫 문장에 ‘대월상제’라는 말을 쓰고, 퇴계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성호 이익이 「대월재서」에서 ‘대월’의 의미에 대해 밝힌 것과 달리, 다산은 오히려 ‘대월재서’에 나오는 ‘소사’라는 단어가 더 주목한다. 물론 ‘소사’라는 말이 다산만 주로 사용한 표현이라 볼 수는 없다. 정조의 어록에도 ‘소사’

12) 『詩經』 「大雅 大明」, “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

가 등장한다.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정조가 신하들과 '서학(西學)에 대한 대처'에 대한 토론을 하며 '소사상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이단을 공격하면서 적합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가 될 뿐이다. 지금 저 양학이 걸핏하면 하늘(天)을 들먹거리는데, 경전을 인용한 것을 들으면 '상제를 밝게 섬긴다'느니 '위대하신 상제께서 충을 내려 주셨다'느니 '이른 새벽에 크게 덕을 밝힌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으니, 이는 모두 성인의 말씀을 끌어다가 꾸민 것들이다.¹³⁾

정조의 시대는 조선에서 서학(西學)이 발흥하던 시기였다. 단순한 서학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서학을 연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서학을 서양과학으로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서학을 천주교라는 종교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미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珍山)사건 때문에 신해박해(1791)가 일어난 뒤이고 계속해서 천주교 탄압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조는 다소 유보적으로 '적합한 방법(其道)으로 이단을 제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하늘'에 대한 것이었다. 서학(양학)을 수용하는 집단, 특히 천주교에서도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데, 정조는 천주교도들의 하늘과 관련된 대표적인 언급으로 '소사상제'를 들고 있다. 정조는 서학 수용자, 천주교도들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다. 정조는 천주교도들이 상제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임금과 부모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들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는 행위 등으로 임금과

13) 『弘齋全書』 165권, 「日得錄」 5, “攻異端 不以其道 斯害也已 今夫洋學 動輒稱天 其引經傳之言 則曰昭事上帝也 曰惟皇降衷也 曰昧爽丕顯也 莫不以聖言而文之”

부모를 제쳐놓고 직접 하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에 그친다. 정조는 “저 양학에서는 도리어 임금과 부모를 도외시하고 직접 하늘과 접하고자 하니, 그 죄는 도리어 하늘을 무시하는 데로 귀결된다.”¹⁴⁾라며 서학 신봉자들에 대해 발본색원보다는 본보기 정도의 교정(矯正)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정조의 이 언급은 정조 23년 1799년에 기록한 것이다.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 이미 ‘소사상제’라는 말이 서학파나 천주교도들을 통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산의 문집에도 ‘소사상제’와 ‘소사’는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다산의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곳곳에 ‘소사상제’ 또는 ‘소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할 글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이다. 다산 스스로 지은 자신의 묘지명인데, 「자찬묘지명」에는 ‘소사(昭事)’라는 용어가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사서(四書)·육경(六經)에 관한 자신의 저술들을 소개하고 덧붙이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성(誠)이란 서(恕)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고 경(敬)이란 예(禮)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인(仁)을 하는 것은 성(誠)과 경(敬)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삼가서 상제를 밝게 섬기면 인(仁)을 할 수 있거니와 태극을 헛되이 높여서 이(理)를 하늘로 삼으면 인(仁)을 할 수 없고 하늘만 섬기는 데에 돌아가고 말 뿐이다.¹⁵⁾

공자나 맹자는 인(仁)을 ‘애인(愛人)’으로 설명했는데, 다산은 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仁)에 대해 성리학의 주요 개념인 태극이나 이(理)로

14) 『弘齋全書』 165권, 「日得錄」 5, “彼洋學者 却欲外君親而直接於天 此其罪反歸於慢天也.”

15) 『與猶堂全書』, 「自撰墓誌銘」, “誠也者 誠乎恕也 敬也者 復乎禮也 以之爲仁者 誠與敬也 然恐懼戒慎 昭事上帝則可以爲仁 虛尊太極 以理爲天則不可以爲仁 歸事天而已.”

풀어내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접근하여 고대 중국의 신적 존재인 상제를 언급한다. 다산은 '두려워하고 삼가서 상제를 밝게 섬기면' 다시 말해, '공구계신(恐懼戒愼)'과 '소사상제(昭事上帝)'를 하면 인(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산의 주장은 소사의 목적어 '상제'라는 대상에 대한 명칭을 중심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산은 기존의 성리학자들처럼 '태극'과 '이'를 하늘로 삼으면 '하늘만 섬기는 데(事天)'로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사상제와 사천을 구분해서 표현한다. 오히려 '소사상제'가 적극적으로 인(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仁)은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계신공구나 소사상제와 같은 종교행위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敬)에 대해서 '예로 돌아오는 것(復乎禮)'이라고 설명하면서, 성(誠)을 서(恕)를 성실히 행하는 것(誠乎恕)이라고 해석하고, 이 성(誠)과 경(敬)이 인(仁)을 실천하는 주요한 두 가지 행위로 보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경(敬)은 기본적으로 '소사'를 의미하고, 성은 『맹자』 「진심상」에 나오는 '강서(強恕)¹⁶⁾를 의미한다. 『논어』의 충서(忠恕)를 설명하면서 주자는 서(恕)에 대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자 하는 '추기(推己)의 서'라고 해석하였다. 이 '추기의 서', 즉 '추서(推恕)'는 마태복음 7장의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에 비견되는 해석이다. 결국 소사상제는 '경천'의, 추서(推恕)는 '애인'의 다산식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찬묘지명에 '소사'가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은 묘비에 실제로 기록되는 명(銘)의 마지막 문장이다.

16) 『孟子』 「盡心上」, “強恕而行 求仁 莫近焉.”

네 분운함을 거둬들이고 / 네 창광함을 중지하라
 힘써 [상제(上帝)를 밝게 섬겨야 / 마침내 경사 있으리라¹⁷⁾

앞서 이익이 ‘대월’이라는 글자에 이미 ‘상제’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소사’라는 글자에도 이미 ‘상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다산은 「자찬묘지명」에서 사서·육경에 대한 자신의 저술들을 소개하고 덧붙이는 말에 ‘소사상제’를 언급했고, 마지막 명을 지으면서도 ‘소사’를 언급한다. 「자찬묘지명」에서 ‘소사’가 두 번 언급된 것인데, 첫 번째는 경천애인의 구조 속에서 ‘추서’와 함께 ‘경천’ 대신 사용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제 명(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소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다산은 죽어서도 ‘소사’하는 것을 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의 소사와 관련하여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대월’과 같이 상제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결국 ‘소사상제지학(昭事上帝之學)’이다. 이 소사지학이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곳은 「중용」과 관련된 두 해석서이다. 먼저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 나오는데, 이 책은 다산이 이십대 초반 정조에게 받은 70개의 질의에 대해 광암 이벽(曠菴 李襲, 1754-1785)과 함께 만든 답변서로 천주교적 해석을 시도한 「중용」 해석서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산은 「중용」 16장에 대해 해석하며 소사상제를 인용한다.

천지귀신이 밝고 삼엄하게 벌여 포진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위대한 분은 상제이십니다. 문왕이 조심스럽게 삼가 밝게 상제를 섬겼으니, 「중용」의 계신공구가 어찌 소사지학(昭事之學)이 아니겠습니까?¹⁸⁾

17) 『與猶堂全書』, 「自撰墓誌銘」, “斂爾紛紜 戢爾猖狂 俛焉昭事 乃終有慶.”

18) 『與猶堂全書』, 「中庸講義補」, “天地鬼神 昭布森列 而其至尊至大者 上帝是已 文王小心翼翼 昭事上帝 中庸之戒愼恐懼 豈非昭事之學乎.”

다산은 「중용」 16장의 “귀신지위덕(鬼神之爲德)”을 해석하며 「중용」 1장의 계신공구(戒愼恐懼) 그 자체가 상제를 밝게 섬기는 것에 대한 공부 즉,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계신공구가 「중용」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산은 「중용」이 곧 소사지학을 다룬 책이라고 주장한다. 다산의 또 다른 「중용」 해석서인 「중용자잠(中庸自箴)」에도 ‘소사지학’이 또 등장한다.

상제를 모시고 마주 대하듯 할이 단지 마음에 있는 것도 바로 또한 이 때문이다. 천명을 도록에서 구하는 것은 이단의 허황된 술법이요, 천명을 본심에서 구하는 것이 성인의 소사지학이다.¹⁹⁾

이 부분은 「중용」 1장의 ‘천명지위성’을 해석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대월상제와 함께 소사지학이 언급되어 있다. 다산은 소사지학이 마음과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천명을 본심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용」의 두 해석서인 「중용강의보」와 「중용자잠」에서 다산은 소사지학에 대해 계신공구와 ‘천명을 본심에서 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산의 다른 글에는 ‘소사상제’와 ‘소사’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다산이 집필한 경전에 대한 해석서에는 ‘소사상제’나 ‘소사’보다는 ‘사천(事天)’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소사의 대상으로 상제라는 명칭보다는 조선 유학에서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천(天)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다.

19)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對越上帝之只在方寸 正亦以是 求天命於圖籙者 異端荒誕之術也 求天命於本心者 聖人昭事之學也.”

IV. 경천(敬天)에서 사천(事天)으로

하늘을 대하는 태도 또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경천’이라는 단어는 조선에 들어와서는 ‘대월상제’와 ‘소사상제’로 대체되었지만, 다산의 저서에 ‘경천’은 적지 않게 언급된다. 대표적으로 「심경(心經)」 해석서인 「심경밀험(心經密驗)」에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

오직 경천 경신은 정좌의 공부이지만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묵묵히 운회하기도 하고 혹 천도를 상상하며 귀신의 이치를 궁구하기도 하고 혹 옛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혹 새로운 뜻을 생각하여야만 성심으로 경천하는 것이다.²⁰⁾

다산은 경천(敬天)을 설명하며 경신(敬神)과 연관되어 ‘경’의 본래적 의미라 할 수 있는 종교적 태도로 시작하지만, 천도와 귀신의 이치를 지나 허물에 대한 반성, 새로운 뜻을 생각하는 학문적 태도까지 해석의 폭을 확대한다. 다산의 문집에서 ‘경천’은 종교적 의미에 제한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송대 유학과 조선 유학의 전통에 따라 다산도 경(敬)을 종교적 의미보다는 마음자세에 관련된 의미로 쓰고 있다. 따라서 다시 다산의 글에서 소사상제와 연관하여 사천의 용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천(事天)이라는 단어는 『맹자』에 나온다.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아니, 그 성(性)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性)을 기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²¹⁾

20) 『與猶堂全書』 「心經密驗」, “惟敬天敬神 可爲靜坐之工 然亦必默運心思 或想天道 或窮神理 或省舊愆 或紬 新義 方爲實心敬天.”

21) 『孟子』, 「盡心上」 5장,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맹자가 성(性)과 하늘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맹자요의(孟子要義)』에서 다산은 사천에 '하늘을 아는 것[知天]이 사천이고, 사천이 지천이다'²²)라고 해석한다. 즉 하늘을 섬긴다는 것과 하늘을 아는 것을 동일시하는 설명으로, 사천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논어』의 '지천명(知天命)' 또는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천에 대한 더 실재적인 설명은 앞서 다산에 의해 '소사지학'의 책으로 규정된 「중용」에 대한 해석서 중 「중용자잠」에서 제시된다.

하늘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것은 항상 인륜에 있다. 인륜에서 선하다면 하늘을 섬길 수 있다.²³)

「중용」 15장 “군자의 도는 비유하면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한다.”에 대한 해석인데, 다산은 가까운 것을 인륜이라고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인륜은 육친(六親; 부모·형제·차자)이라고 설명한다. 육친이라는 인륜에 대해 선하다면, 하늘을 섬길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면 그 자체가 사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다산은 경(敬)에 대해서 이미 하늘에 대한 섬김에서 학문을 포함하는 모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데, 사천 역시 단순히 하늘 또는 상제만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인륜 즉 윤리까지 확장된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는 인륜에 대해 육친보다 더 가까운 사친(事親)으로 설명한다.

所以事天也.”

22) 『與猶堂全書』 「孟子要義」, “知天則事天 事天則知天.”

23)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天之所以察人善惡 恒在人倫 善於人倫 則可以事天矣.”

군자의 도는 사천에서 끝마치는 것으로 이를 일러 ‘도달했다’고 한다.²⁴⁾

『논어』의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에 대해 설명한 부분인데, 하학(下學)에 대해 다산은 인사(人事) 즉, 효제인의(孝弟仁義)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상달에 대해서는 하학의 공부가 축적되어 천덕(天德)에 이르는 것이라 설명한다. 더 간단히 말해 ‘사천에서 시작해서 사천으로 마친다.’²⁵⁾라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군자의 도는 사천에서 마치는 것이고 사천에서 마치는 것이 ‘상달’이라는 설명이다. 사천과 사천을 연결한 사천 사천의 ‘시종론(始終論)’은 「중용강의보」에도 등장한다.

군자의 학문은 사천에서 시작하여 사천에서 끝나는 것이다.²⁶⁾

이 구절도 「중용」 16장의 “귀신지위덕(鬼神之爲德)”을 해석한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귀신과 관련된 장이지만, 여기서도 다산은 경천의 의미와 같이 사천을 사천과 연결시켜 군자학(君子學)의 시작과 끝으로 정의한다. 즉 사천은 군자학, 통치자를 위한 학문의 마침이자, 지도자를 위한 학문의 끝이라는 것이다. 유학의 군자학에 있어서 ‘수신(修身)’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다산의 다른 글에서 사천은 수신과도 연결되어 해석된다.

하늘이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근거는 항상 인륜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신하고 사천하는 것 또한 인륜으로써 힘을 다하는 데 있다.²⁷⁾

24) 『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君子之道 終於事天 此之謂 達也.”

25) 『與猶堂全書』 「論語古今註」, “下學 謂學道自人事而始 卽孝弟仁義 上達 謂積功至天德而止 卽所云始於事親 終於事天.”

26) 『與猶堂全書』, 「中庸講義補」, “君子之學 始於事親 終於事天.”

27) 『與猶堂全書』 「中庸自箴」, “天之所以察人善惡 恒在人倫 故人之所以修身事天 亦以人倫致力.”

이 부분은 「중용」 1장에서 수도(修道)를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 하늘에 대해 임부원은 상제와 동일시하며 “우리가 타인과의 교제에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라고 해석했다.²⁸⁾ 그리고 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사천인데, 사천과 경천은 본래의 종교적 의미로 본다면 개인적인 영역이고, 수신(修身) 역시 개인의 수양에 치중되어 있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기복은 “다산은 소사에 있어서 외적인 의례나 기도 행위보다는 수신과 윤리를 통한 사천에 중점을 두었다.”²⁹⁾라고 보았다. 김치완은 다산의 수양론의 개념들도 지천명과 경천 그리고 소사상제 등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이러한 수기(修己)의 측면도 사천으로 해석한다.³⁰⁾ 다산에게 사천은 물론 수신까지도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륜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사를 설명하며 인륜에 근거하여 수신과 사천을 연결시켜 설명한 것이다.

IV. 나가는 말

‘경천애인(敬天愛人)’은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강령과 상통하는 한자성어이다. 그러나 경천이라는 말은 중국 송대 유학을 거쳐 조선 유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대월상제로 표현이 대체되었다. 그리고 서학의 영향을 받은 다산은 「중용」의 해석서를 집필하며 ‘소사지학(昭事之學)’이라는 공부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산의 글에는

28) 임부원,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2018.6), 35.

29) 최기복,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의 理解에 關한 研究 : 近世의 祭禮問題와 茶山의 宗敎思想에 關聯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350.

30) 김치완, “茶山 丁若鏞의 昭事上帝 관념 연구 : 天譴意識과 修己의 觀點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7(2012), 254. 김치완은 다산의 수양론에서 수기의 측면을 知天命-敬天-昭事上帝-齊明盛服으로 연결시켰다.

‘사천(事天)’이 더 많이 사용된다.

다산은 사천에 대해, 가장 먼저 『맹자』의 논의 안에서 지천(知天)이라고 정의한다. 지천은 하늘의 명을 아는 것 또는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다. 조금 더 실재적인 해석은 「중용」 해석서들에서 나타나는데, 사천은 인륜에서 시작된다. 인륜은 육친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육친을 섬기는 사천은 인륜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다. 사친과 사천은 군자지학에서 시종이 되는데, 즉 사친은 군자학의 시작이 되고 사천은 군자학의 끝이 된다. 또한 사천은 군자학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수신도 사천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다산이 말하는 소사지학은 군자지학이다. 즉 소사지학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도자의 사친과 사천을 시종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지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수신이 또한 사친과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고, 또한 타인에 대한 것도 소사지학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사친과 추서(推恕)가 함께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詩經』

『論語』

『詩經』

『退溪集』

『星湖全集』

『弘齋全書』

『與猶堂全書』

최기복,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의 理解에 關한 研究 : 近世의 祭禮問 題와 茶山의 宗教思想에 關聯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임부연, “정약용이 발견한 ‘천명天命’과 ‘교제交際.’” 『다산학』 32(2018.6).

김치완, “茶山 丁若鏞의 昭事上帝 관념 연구 : 天譴意識과 修己의 觀點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7(2012).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31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21일

• 국 문 초 록 •

동아시아 사상에도 성경의 핵심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비견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소사상제(昭事上帝)’를 동아시아 경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둥으로 삼은 다산 정약용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산에 관한 연구는 ‘소사(昭事)’보다는 ‘상제(上帝)’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소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사상제’에서 그 대상이 되는 ‘상제’보다는 행위가 되는 ‘소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산이 말하는 소사지학은 군자지학이다. 즉 소사지학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도자의 사친과 사천을 시종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지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수신이 사천과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고, 또한 타인에 대한 것도 소사지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소사상제, 경천애인, 대월재천, 기독교윤리
